

# 大學에서의 學生指導機能 活性化

金 忠 起  
(建國大 教育學科)

대학에서는 지금까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터전 위에서 학생을 지도하기 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수습하는 단기적이고 미봉적인 대응책에만 신경을 써 온 것 같다. 이 글에서는 學生生活指導의 組織體인 學生生活研究所를 活用하여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지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 I. 序 論

해마다 새 학기를 맞게 되면 學校當局이나 文敎部 또는 社會機關 그리고 일반 社會人들은 大學生들의 학원소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율화 이후 學園內 모든 變化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과민한 신경을 곤두세우는 원인은 學園의 安定이 곧 社會의 安定을 가져 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學校 내부의 변화는 학교 내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시끄러우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연 대학생의 영향이 큰 것인가? 政府當局도 學園소요의 근절과 學內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학원의 安定對策에 부심하고 있다. 결국 학원만 조용하면 萬事가 亨通한다는 지경에까지 생각하게 된 것은 무언가 根本政策과 계획이 未備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학원에 어

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 처방하도록 학생에 대한 깊은 研究와 치료 내지 예방 지도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 피상적인 方法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은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참신한 일꾼으로서 知識과 德目을 수련하면서 예비 사회인으로서 學問을 연마하고 社會人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一時的 혹은 長期的으로 욕구불만이 강하여 發散할 경우에 일단 受容의 姿勢로 임하면서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냉철한 판단 위에 專門의 對話로써 이끌어 나가고 학생들의 深層構造를 이해·파악·분석하여 욕구불만의 대상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학에서는 계획적이고 組織的인 터전 위에서 학생을 指導하기보다는 문

제가 더졌을 때 이를 수습하려는 단기적인 치료 방법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인간은 누구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언제든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學校當局이 組織的인 學生生活研究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學生生活 전반에 관한 이해를 촉구하고 허용적 분위기 속에서 問題點을 파악하여 專門的인 相談活動과 情報提供活動 등 학생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바를 다방면으로 모아 분석하고 처방하는 전문기구를 두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行政的·財政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사실 대학은 集團을 통한 소요장소가 아니다. 소요가 있게 되면 무비판적으로 학생을 나무라고 무조건 근절시키려는 강압적인 方法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을 짐작하여 온건한 마음과 교육자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지도 조언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예방지도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학원소요를 政治的인 眼目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偏見(?)을 가지고 指導方案을 모색하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學業生活이나 對人關係, 學生活動, 職業選擇問題, 異性問題, 社會觀, 未來觀, 價値觀 등 갈등이 심하고 욕구불만이 가득찬 시기임을 心理的, 身體的, 情緒的 變化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경청하며 수용하는 자세로 당면과제를 직면하면, 실마리는 풀어 나갈 수 있다.

대학의 學生指導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問題解決의 과정은 學生指導의 본래 使命이며 영속적으로 계속되는 행위이다.

오늘날의 대학은 인간의 知性和 그 지성이 관여하는 온갖 인간 能力을 啓發하는 精神的 生活의 道場이며, 인간과 自然의 질서를 탐구하고 삶의 權利를 開發하는 創造的 生活의 本產이다. 人類의 經驗과 그것을 통하여 형성된 文化, 또한 이와 더불어 추구해 온 價値를 이해하고 批判하여 傳承, 발전시켜 온 文化的 傳統의 主軸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sup>1)</sup>

더우기 근래에 들어 급속한 經濟, 文化的 발달을 이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産業構造는 脫工業化 時代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따라서

高級頭腦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 社會流動을 위한 준비의 욕구가 커짐으로써 대학은 새로운 挑戰을 받게 되었다. 대학은 知的 엘리트의 양성이라는 傳統的 機能을 수행함과 동시에 大衆化 傾向의 克服, 質的 維持를 위한 노력, 그리고 職業的 생활의 올바른 인도라는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점을 소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sup>2)</sup>

이제 대학의 기능은 普遍化教育으로 指向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다음 未來社會인 職業社會에 유용하게 적응하고 生計의 유지는 물론 강차 행복하고 만족하며 보람을 느끼고 선택된 직업을 통하여 自我實現할 수 있는 방향으로 大學教育이 모색되어야 할 때가 왔다.<sup>3)</sup>

이러한 大學教育의 方向에 따라 학생들도 이에 현명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職業世界에 대한 展望과 앞으로 자기가 선택할 직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역할과 기능은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더욱 직업의 선택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어 학생들은 競爭 속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大學教育은 실질적인 학문의 응용력을 길러야 한다. 대학은 人生의 眞理, 眞實을 탐구하고 학문의 심오한 事理를 배우는 곳이며, 참을 알고 참을 깨닫는 곳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대학은 理想을 추구하는 반면에, 현실에 놓여 있는 문제는 한 나라의 文化를 繼承, 創造하고 내일의 棟梁을 양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大學教育의 成敗는 대학생의 個人的, 集團的인 問題解決을 통한 學業生活과 대학 사회에의 온전한 적응에 달려 있다<sup>4)</sup>는 것은 再論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 II. 問題點 提起

지난 몇 년대 동안 韓國社會는 轉換期의 거친 激浪을 헤치며 近代化를 향한 힘든 航海를 계속해 왔다. 西洋 先進社會가 2~3세기에 걸쳐 지나온 근대화의 歷程을 한국 사회는 20~30년만에 단숨에 향해하는 데서 많은 충격과 혼란이 있었

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한 급격한 社會變化이다.

대학은 社會體制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變化의 물결로부터 격리될 수는 없었다. 한국에서 급격히 일어난 工業化, 都市化, 民主化, 大衆社會化와 같은 사회 변동은 대학의 機能과 構造에 대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한편 대학도 社會의 近代化에 직접, 간접으로 기여를 해 왔다.<sup>5)</sup>

한국 고등교육의 量的 膨脹에는 經濟的 要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부터 60년대에 이르기까지 就業機會의 부족과 勞動力의 과잉으로 인하여 심각한 失業狀態가 지속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취업에 유리한 보다 높은 資格(대학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많은 고교 졸업자들이 대학을 지망하게 되었다. 대학에 있어서 教育機會의 급속한 擴大와 均等化는 대학의 質的 水準의 유지에 큰 장애가 되어 왔다. 또한 大學生 人口의 갑작스런 증가는 教授와 施設의 심각한 부족 현상을 초래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급속한 대학 膨脹은 대학의 規模를 상대적으로 비례화시켰고 교수 1인당 學生數를 크게 증가시켰다. 대학의 數도 해방 당시 전국의 고등교육기관 수가 불과 19개교에 불과하였으며 學生數도 7,800여 명이였다. 그 후 40여년이 지난 1983년 현재 257개의 고등교육기관과 100만명의 학생으로 늘어났다. 학생수가 불과 40년 동안 무려 130배로 증가하였으니<sup>6)</sup> 대학생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따르는 生活指導의 문제는 마땅히 필요성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마다 학생을 受容하는 강의실, 도서관, 학생복지관, 식당, 기숙사 등의 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教授對 學生 비율도 1:34명의 수준으로서 가르치는 교수의 절대 부족으로 過密學級을 면치 못하고 個性을 무시한 채 大型講義로 말미암아 學問의 質的 水準의 저하와 학생의 요구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職業樣相의 변화와 좁은 就業門 등 대학 卒業後의 進路問題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매년 수만명의 대학 졸업생이 나아갈 職業選擇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학생들은

未來의 就業에 대한 不確實性과 뚜렷한 전망이 흐려져 있어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欲求不滿과 갈등에 무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韓國 大學은 해방 후 학생들의 政治的 學園騷擾로 인하여 자주 그 正常的 機能이 마비되고 사회 불안이 야기됨으로써 政府가 그 만성적 학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 學事에 개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학원소요를 예방하기 위하여 學事 전반에 걸쳐 관여하게 되었으며 대학이 스스로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公權力의 개입이 불가피하였다.

해방 후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해서 放任的 태도를 취하고 있는 동안 대학이 無秩序하게 亂立하고 확장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不正非理와 學園紛糾가 자주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빚고 學園의 私企業化 경향이 學園소요의 불만적 요인으로 된 것도 간과할 수 없다.<sup>7)</sup>

이처럼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비싼 등록금을 내어 修學하는 수익자 부담의 학생들은 學校生活를 통하여 合理的인 반대급부를 원하고 있다. 아울러 만족할 만한 학업상의 教授內容과 施設, 學問의 自由와 學生活動의 自律化, 교수와 학생간의 충만한 對話, 자유로운 서클活動, 學生福祉를 위한 지원의 適合性, 就業情報 活動과 對策, 交友關係와 異性의 문제, 學業失敗에 대한 불안과 갈등, 未來社會에 대한 적응의 문제, 大學教育에 대한 期待, 餘暇善用的 문제, 人生觀과 宗教, 價値觀의 갈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문제가 산적되어 있어 이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대처하는 데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다. 더욱이 밝혀진 調査에 의하면 대학생 중 약 40%의 학생이 자신의 專攻을 잘못 선택하였다고 후회하고 있으며, 약 95%의 학생이 이해해 주는 教授가 없다는 것을 불평하고, 약 50%가 大學教育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고 한다. 또 약 70%의 학생이 個人問題의 해결을 위하여 도움을 받고 싶은 상태에 있다는 것 등이 밝혀진 바 있다.<sup>8)</sup>

이와 같은 대학생들의 內的인 고민과 갈등의 문제는 外的으로 激動하는 정치적, 사회적 變化

와 變革의 加勢에 의하여 더욱 고조되고, 학생들의 方向感을 모호케 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학생들의 大學生活와 學生指導는 더욱 관심을 가지는 對象의 초점이 되고 이를 적절하게 도와 주는 專門的 學生生活指導는 時代的 變化의 요청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도내용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길은 두말할 필요없이 組織的인 奉仕活動인 學生生活研究所의 役割과 機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학생도 靑少年期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生活指導의 對象으로서 각별한 지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大學生活를 효율적으로 보내고 낭만과 理想을 바탕으로 自己完成과 自我實現의 廣場으로서 만끽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方案을 탐색해 보고 실천하도록 권장하며 대학의 근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이해가 결실히 필요하며 요구되는 바이다.

### Ⅲ. 解決方案의 摸索과 問題

學生生活研究所의 시작은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로서 1962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이 研究所에서의 指導活動 내용을 소개하던 다음과 같다.<sup>9)</sup>

- ① 學生指導 原則 및 指導方案의 樹立
- ② 학생의 個人的 문제를 파악, 분석하고 도와주기 위한 諸般 對策의 수립
- ③ 個人相談(individual counseling)
- ④ 集團指導(group guidance)
- ⑤ 他大學에 대한 專門的 學生指導의 助長·示範
- ⑥ 中·高等學校의 學生指導의 실태 조사 및 改善策의 提案
- ⑦ 學生指導要員의 養成
- ⑧ 學生生活 案內書 등의 發刊
- ⑨ 心理檢査의 實施
- ⑩ 學生問題研究, 會合 개최 등 당시의 活動계획은 비교적 광범위하였고 선도

적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學生指導機關의 설립은 처음에 대학운영 담당자들이 학생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기보다는 文教當局의 행정적 중용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차원을 벗어나 大學當局의 이해로 말미암아 學生生活研究所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 연구소는 주로 學生問題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관과 專門的인 助力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해 오고 있다. 1984년 현재 學生生活研究所가 설치된 지 22년이 되는 해이다. 1982년 조사 연구에 의하면 전국의 82개 대학(綜合大 32, 單科大 50)에 연구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아직도 未設置大學은 20여 개나 된다.<sup>11)12)</sup> 그렇지만 文教部 당국의 권고로 그 후 많은 대학이 연구소 設置에 협조하고 있으며 行·財政的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영세성을 면하기 어렵다.<sup>13)</sup> 뿐만 아니라 敎職員의 절대수 부족, 연구소의 施設 부족, 기능의 多樣性 결여, 즉 相談 및 心理檢査 활동에의 편중, 專門研究誌 및 學生指導資料의 발간 활동 未洽, 학생지도 및 勉學雰圍氣 造成을 위한 활동 결여<sup>14)</sup>로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未備點과 부족, 결여사항을 우선적으로 보완하여 학생들의 要求나 問題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學生生活研究所를 주축으로 分擔指導敎授의 영향력 있는 성실한 指導와 專擔 카운슬러의 학생지도 활동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다. 따라서 學生生活研究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研究所의 기능 강화 方案으로서는 ① 調査活動의 강화(신입생, 재학생의 人的 事項 실태 조사, 학생들의 要求 및 희망사항, 意識構造 조사) ② 相談活動의 강화(개인 및 집단 檢査活動의 전개, 상담활동의 문제 영역 확대, 개인 및 집단 상담활동의 전개와 강화) ③ 집단 指導活動의 강화(時局觀 定立을 위한 집단 지도, 교양 및 학술강연회 개최, 小集團對話, 精神健康 지도, 국내의 研修活動 지도) ④ 職業報道活動의 강화(副職 및 就業情報의 제공, 정부기관, 기업체, 산업체 등과의 유대 강화, 취업준비 및 알선 활

동) ⑤ 研究活動의 강화(상담 지도활동을 위한 연구, 指導教授制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및 방법 제시, 신입생, 재학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進路 및 獎學制度의 개선 연구) ⑥ 出版·普及活動의 강화(研究誌의 출판 및 보급,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책자의 출판 및 보급, 學生指導 資料의 출판 및 보급, 뉴스레터의 출판 및 보급, 취업보도지 출판, 해외 유학 정보지 발간, 가치관 및 이데올로기 문제에 관한 출판 및 보급, 기타 상담실 운영의 홍보활동) 등이 제시되고 있다.<sup>15)</sup>

이장호는 大學相談의 새로운 추세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sup>16)</sup> ① ‘정신의학적·심리 분석적 모형’에서 ‘教育的 模型’으로의 변화 ② 相談室의 來談者(client)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서 학급·서클·기숙사 생활 등에 대한 직접적인 介入 ③ ‘치료·교정적인’ 목적의 활동에서 ‘예방·훈련·교육적인’ 측면에의 강조 ④ 소수의 個人相談보다 대다수의 학생을 위한 集團相談 및 教授指導 등으로 상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대학은 과거 해방 당시와 같은 小數의 대학생이 아니라 大衆화된 大學教育이니 만큼 小數를 위한 相談指導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들을 상담할 전문인력의 부족, 施設環境의 未備, 相談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教授들의 무성의 등으로 개인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서 문제가 없고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문제를 노출하지 않고 잠재해 버리고 문제가 쌓이고 해결이 안 되면 더 큰 정신질환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문제를 터놓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指導助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연구 소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될 줄로 믿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自己意思表示가 매우 부족하다. 문제가 생기면 허물없이 對話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 표현하지 않고 감추어 두는 데서 더욱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物理的 고통도 어렵지만 정신적 피로와 고통이 육

체적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毎事에 자신없고 무력해져 劣等感 내지는 자포자기에 이른다. 학생들은 大衆 속에 고독을 느끼며 소외감, 허탈감 속에 사로잡혀 學業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가 많아지고 있다.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누구와 相談하거나 토로할 對象을 찾지 못다고 방황하는 학생이 專門的 對話·指導를 만나게 된다면 生動感을 갖고 의욕이 생겨 본체도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도록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生의 活氣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方案은 學生生活研究所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 研究所의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學校當局은 적극 지원해 주어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IV. 專門的 指導프로그램의 活性化

學生指導는 나름대로 학생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忍耐로써 성실한 對話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별한 학생에 대한 깊은 연구와 指導方法, 相談方法을 이해하고 心理測定 및 結果의 해석 등 전문적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學生指導에 관련된 지도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sup>17)</sup>

- ① 信念·希望·사랑으로서의 진지한 對話
- ② 각종 서클활동의 폭 넓은 지도와 活性化 촉구
- ③ 學生生活研究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학교 당국의 行·財政的인 지원의 강화로 學校相談기구의 活性化와 홍보활동 전개
- ④ 학생과 教授座談會 개최
- ⑤ 대학내 學生指導機關간의 協調體制 확립 및 분리 운영
- ⑥ 教授의 研究活動의 장려와 人格 涵養
- ⑦ 學生生活研究所 기능과 역할에 따른 대학생들의 참여의식 강화
- ⑧ 學生生活研究所 활동에 필요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필요성 提高
- ⑨ 專門 카운슬러의 배치와 활동의 極大化
- ⑩ 白紙對話를 통한 質問紙 이용과 분석 및 해석
- ⑪ 分擔教授의 相談活動 강화

- ⑫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건의함' 설치와 의견 청취
- ⑬ 국민정신 교육과 이데올로기 교양강좌 개최
- ⑭ 價値觀 내지 人生觀 敎育을 통한 自己主體性 확립
- ⑮ 대학 學生指導委員會 구성 등이다.

따라서 學生生活研究所의 기대되는 역할은 ① 대학생들의 요청에 응하는 相談과 각종 心理檢査의 서비스 ② 大學의 學生指導 政策樹立에 있어서 적극 관여하여 전문적 학생지도의 개념을 大學社會에 보급하는 역할로서 선도적 기능이 있다. 學生處의 方針樹立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通路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 각종 情報活動(information service)은 학생지도에 있어서 불가결의 서비스이며 敎育, 職業, 個人·社會의 情報에 관한 풍부한 資料를 비치하고 수시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學業生活, 交友關係, 生涯의 設計, 職業선택, 건강생활, 예절과 태도, 異性觀, 價値觀, 宗教觀, 社會觀 등 정보제공 활동을 전개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④ 연구소는 전문적 學生指導의 센터로서 專門 相談委員會를 구성하고 해당되는 분야에서 相談活動을 전개한다. 또한 學生問題에 대한 깊은 연구와 學生實態 조사, 個人相談의 事例報告 등 여러 集團活動의 效果를 검증하는 일까지 광범한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하며 自律性이 보장되어야 한다.

學生生活研究所의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된다.

- ① 小集團對話 ② 학생이 관심을 갖는 내용으로 敎養講座 및 時局講演 개최 ③ 學生處 責任者, 分擔指導敎授, 학생 대표자간의 간담회 ④ 學事警告를 받은 학생에 대한 集團指導 및 相談 실시 ⑤ 卒業班을 위한 産學 심포지움 ⑥ '효과적 학습방법', '논문작성법', '대학생활 안내' '대학과 學問', '취업정보' 등의 소책자 발간 및 배부 ⑦ 이데올로기관계 서적, 이론바 '反文化, 反體制的 書籍, 代表的 哲學, 藝術, 文學作品'을 함께 포함하는 '敎養圖書解題'의 발간, 배부 ⑧ 분담지도교수, 학생지도 관계자를 위한 '대학생 面接의 指針', '우리 대학의 學生現況' 같은

소책자 및 프린트물을 작성하여 전 교수에게 배부 및 봉사활동, ⑩ 夏季, 冬季放學중 신입생(또는 高校進學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 ⑪ 신입생 및 졸업반 학생들의 특성(성격, 태도, 가치관 포함) 조사 등을 실시한다.

그 밖에 ① 不安統制訓練 ② 自己表現訓練 ③ 就業面接의 訓練 ④ 心理劇실시 ⑤ 小集團人間關係訓練(T-Group, 感受性訓練)(sensitivity training), 對面集團 등의 특수 집단지도의 훈련 ⑥ 讀書法 ⑦ 리더십 훈련 ⑧ 進路相談 ⑩ 각종 心理檢査의 실시와 해석 ⑩ 각 대학의 學生生活研究所와의 유대 강화 및 정보 교환 ⑪ 각 研究結果의 활용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아울러 추진하여야 한다.

## V. 結 論

大學生活은 自己完成의 시기이며 낭만의 시대이다. 긍지 높은 자부심과 人格完成, 엘리뜨라는 인식 속에 자기 존재를 의식하는 세대이다. 또한 正義感이 강하며 不義에 항거하는 참신한 청년기이므로 의욕과 욕구가 충만하며 진취적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內外的 특징을 중심으로 그들을 指導하는 方法은 다양하다. 여기에 제시한 내용은 주로 대학에서의 學生生活指導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천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여태까지 學生生活研究所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거나 이해 부족으로 미온적인 태도로 임해 온 것에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學生指導는 분담 지도교수에 의해서만 좌우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설정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行政組織 속에서 전문가에 의한 指導體制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自律性을 보장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구소의 기능을 보다 活性化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 즉 行·財政的인 자원이 이루어져야 目的한 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대학생의 問題領域은 다양하다. 학업, 유학, 異性, 건강, 성격, 경제, 종교, 사회관, 도덕관, 交友關係, 對敎授關係, 취업, 副職, 여가 선용, 가치

관, 이데올로기, 정치권 등의 문제가 나름대로 갈등을 느끼면서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해결되도록 대화를 통한 이해 증진에 노력하도록 通路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外部的인 壓力에 의한 學生指導는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의 치료가 될지언정 영원한 치료는 아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指導는 위에서 언급한 根本問題를 중심으로 理解와 受容 그리고 意思疏通의 과정을 거쳐 自己理解, 自己改善, 自己充足의 방향으로 이끌어 自己實現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學生生活研究所의 적극적인 활동에 기대를 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대학에서의 學生指導機能活性化는 學生生活研究所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指導센터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助成해 준다면 문제는 순조롭게 잘 풀려갈 것이다.\*

<註>

- 1) 크리스찬 아카데미, “韓國大學의 方向과 課題”, 「교육연구」, 서울: 韓國教育生産性研究所, 1982, 8월호, p. 19.
- 2) 鄭宇鉉,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大學教育의 再照明”,

- 「직업교육연구」, 서울: 韓國職業教育學會, 제 3권, 제 1호, 1984, p. 3.
- 3) 金忠起, “大學教育의 未來와 職業教育의 發展方向”, 「직업교육연구」, 서울: 韓國職業教育學會, 제 3권, 제 1호, 1984, p. 100.
  - 4) 鄭元植, “韓國大學社會에서의 學生生活研究所의 役割”, 「大學 學生生活研究所 機能 定立을 위한 學術 심포지움」, 忠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2. 7. 2, pp. 3~4.
  - 5) 李相周, “韓國大學의 變化와 葛藤”, 「大學間 協力を 위한 韓美大學總長세미나 全體協議 I: 高等教育의 趨勢」,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4. 6, p. 1.
  - 6) 上揭論文, pp. 2~5.
  - 7) 上揭論文, pp. 8~9.
  - 8) 鄭元植, 前掲書, p. 4.
  - 9) 上揭論文, pp. 6~7.
  - 10) 上揭論文, pp. 8~9.
  - 11) 田贊和, “大學 學生生活研究所의 活動課題와 展望”, 「大學 學生生活研究所 機能 定立을 위한 學術세미나」, 忠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2. 7, p. 46에서 재인용.
  - 12) 黃應淵의 2인, 「大學 學生生活研究所 運營強化 方案」, 梨花女子大學校, 1981. 10.
  - 13) 上揭論文, pp. 13~14.
  - 14) 上揭論文, pp. 12~19.
  - 15) 황응연, 오필호, “大學 學生指導研究所의 活性化 方案研究”, 「學生生活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1, 17卷, pp. 1~23.
  - 16) 이장호, 「상담심리학입문」, 서울: 박영사, 1982.
  - 17) 金忠起, “大學에서의 學生指導”, 「교육연구」, 서울: 韓國教育生産性研究所, 1982. 7월호.